

에 대한 인식은 계속 이러한 오점을 남겼다. 애니메이션은 단지 애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오해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일찍이 성인 애니메이션과 아동애니메이션의 구분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업계 인사와 시청자들에게 일정 정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생각을 깨우친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

## 이슈) 한중 드라마 공동제작의 달콤함

버라이어티

최근 한중 합작 드라마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합작의 깊이도 깊어지고 있다. 한중 합작은 앞으로 중국 드라마의 제작 수준 향상, 해외시장 확장, 수출 종류 확대에 적극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의형제 산하의 천의영시공사의 회의록에는 올해 투자할 드라마 목록이 나열되어 있다. 김정훈, 쑤리(孙丽) 주연의 《연애병법(恋爱兵法)》은 2007년 4월 15일 트랭크인 예정이다. 천의영시 사장 우이(吴毅)는 “이 드라마는 천의영시와 한국이 함께 제작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헤비급 합작”이라고 전했다.

오늘날, 천의영시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과 합작을 하는 중국 회사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의 성공여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작의사는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광전총국 드라마관리사 부사장 왕웨이핑은(王卫平) “우리의 드라마생산기구는 시각을 중국 국내시장에만 고정시켜서는 안됩니다. 국제시장으로 시야를 넓혀야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 드라마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 투자형 합작 증가

중국 거대 시장의 유혹, 한국 국내 드라마 제작자본의 성장(최근 한국 드라마 1부의 평균 제작 자본은 120만 위안이며, 중국 내륙은 평균 40만 위안), 그밖에 최근 중국 드라마 제작수준의 빠른 성장. 상술한 3가지는 점점 더 많은 한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중국에 와서 주머니를 푸는 주요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드라마 생산업체의 국제합작 의사도 매우 강해 드라마 생산량의 과잉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혼잡한 시장에서 서로 다투는 제작사들은 더 넓은 시장공간, 더 큰 자본 서포트 및 더 다양한 판매루트를 급히 찾고 있다.

쌍방의 필요에 기초하여 한중 드라마의 접촉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드라마 영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합작 초기모델은 “한류스타 모델”이었다. 극의

투자는 중국 제작사가 맡아 중국측이 제작을 주도하면서 한국의 스타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한류 스타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해외판권은 중국측이 마케팅을 담당한다. 안재욱이 출연한 《셀러리맨 아파트(白领公寓)》, 차인표 주연의 《사대명포(四大名捕)》, 채림이 여주인공을 맡은 《칭땡아이친하이(情定爱琴海)》, 김재원이 출연한 《북경내사랑(北京, 我的爱)》, 장나라가 출연한 《띠아오만공주(刁蛮公主)》 등이 이에 속한다.

지금, 이러한 산만한 합작방식은 이미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중제작사들은 더 깊은 합작 방식을 원하고 있다. 《연애병법》이 바로 그 예이다. 《연애병법》의 제작측 쌍방이 30부에 가까운 드라마에 모두 2000만 위안을 투입하였다.

또한 계속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맹방미디어(盟邦传媒)는 한국과 새로운 드라마 《가을날의 동화(秋天的童话)》에 투자할 계획이다.

맹방미디어 운영팀장 쑤헝하이(孙桁海)는 이 드라마는 먼저 한국의 MOB사가 홍콩에서 사온 영화의 드라마 각색권을 샀으며, 맹방미디어가 20% 투자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측과 함께 이 드라마를 제작하여 중국 내륙의 판권을 획득하였다고 전했다. 이 드라마 외에도 맹방미디어는 올해 또 MOB 및 KBS와 함께 사극을 한편 공동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드라마 제작에서 심층 합작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제작측이 합작 중의 “공동촬영”에 대해서는 모두 매우 신중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중합작 드라마에는 모두 중국 국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다. 한국투자는 통상적으로 해외 판권 예약금의 형식으로 투입된다. 이렇게 하는 원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제작드라마는 국내 위성 방송의 저녁 황금시간대에 방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실질적으로 드라마의 해외 판매 수익을 보장하는 길이다.

#### “한류”를 이용해 배급 촉진

공동제작 드라마, 한국 시장 있을까? 실질적인 상황은 이러한 드라마에 한국스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지는 않는다. 반대로 한국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대부분 순수 중국 사극이다. 멀게는 《황제의 딸(还珠格格)》, 《판관 포청천(包青天)》이 있으며, 가깝게는 《산서성 거상의 일대기(乔家大院)》가 있다. 작년 9월 제1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산서성 거상의 일대기》는 미국의 《위기의 주부들》을 제치고 장편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거머쥐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3대 방송국의 해외드라마 방송률은 전체 드라마 시장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드라마였다. 중국 드라마는 평균 1년에 1개의 드라마를 방송하며 유형도 매우 단일적으로, 대규모로 제작된 역사극이다.

KBS 해외시장기획부의 한 제작자는 중국 드라마를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드라마 당연히 우선 중국 본토에서 매우 높은 시청률을

보였어야 하며 기타 시장에서도 판매 성과가 좋아야 한다.

소재상에서 현재 한국 드라마시장은 사랑이야기가 아닌 소재, 탐정 소재, 경찰 수사극 등에 소재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크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의 드라마는 관련 규정의 제한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제작사들은 현대극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천의영시는 많은 자본을 들여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한국 드라마 《궁》으로 인기를 얻은 김정훈을 《연예병법》에 투입시켜 호소력을 높인 것이다.

좋은 소식은, 중국과 합작하는 한국회사들의 시선이 한국시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시아 시장 전체이다. 그래서 이러한 드라마에 투자하는 한국측은 통상적으로 드라마의 아시아판권, 더 나아가 세계판권을 가져간다. 공동제작 드라마에 대한 계산을 한국 방송국이 할지는 더 이상 중요치 않다. 일본, 동남아시아, 홍콩, 대만 지역에서 시장을 찾을 수만 있다면 드라마는 비교적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테니 말이다.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제작사와 “국가비준드라마”도 “한류”를 빌려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 인기를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 중국 현대극의 보장을 위해

“드라마는 해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수준이 낮아서도 안된다.” 쑨형하이이는 《가을날의 동화》 제작에서 한국측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국측에서는 전문적으로 제작과정 진행을 감독하는 사람을 파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제작사들이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다.

“공동제작”은 드라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산 드라마의 수출 종류 및 품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수출하는 드라마는 대부분 사극으로, 종류가 매우 적다. 사극에 비교해, 중국의 현대극은 약세 종목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극은 아시아 시장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의 현대극 합작은 “스승의 장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우이는 이번 한국과의 합작에서 얻는 수익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사극에서 중국 제작사는 결코 수준이 떨어지지 않지만 현대극은 줄곧 우리의 약점이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좀 배워야 한다.”

《연예병법》의 작가는 《파리의 연인》을 썼던 김은숙 작가이다. “다른 작가들의 플롯은 여러 형태로 발전을 하지만 그에 비해 중국의 드라마플롯은 매우 단일하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배워야 하는 것들이다.”고 우이는 말했다.

그 밖에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온 메이크업 전문가, 사진작가 등의 제작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이러한 “한국역량”이 오면 드라마의 수준이 보장되며 중국 제작사는 한국 현대극이 제공한 기회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